

건국대 2019학년도 인문사회계1 2번

- ☞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하여 [라]에 나타난 '대학생'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우리는 인습적인 형태와 색깔만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은 때때로 별이 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별표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림에서 하늘은 푸르려야 하고 풀은 초록색이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린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림에서 다른 색채를 보면 화를 낸다. 그러나 그들이 초록색 풀과 푸른 하늘에 관해서 지금까지 들어 왔던 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면, 혹은 마치 우주 탐험 여행 중에 다른 행성에서 돌아와 지구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본다면, 우리는 주위의 사물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다른 색채들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화가들은 때때로 그러한 우주 탐험을 다녀온 것같이 느낀다. 그들은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의 삶은 살색이고 사과는 노랑거나 빨강다는 기존의 관념과 편견을 버리려고 애쓴다.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 성공한 미술가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때가 많다. 이러한 화가들은 우리들에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움의 존재를 자연에서 찾으라고 가르쳐 준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그들로부터 배우고 우리 자신의 창에서 벗어나 그들의 세계를 한번 힐끗 내다보기라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모험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고전』

[나]

장자에 따르면, 도에서 덕이 생기고 덕에서 구체적 사물이 생겨나는데, 구체적 사물이 생겨나면 본성이 있게 된다. 만물은 제각기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타고난 본성을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9만 리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큰 새[大鵬]와 나무 사이를 겨우 날아다니는 매미[螻]는 타고난 본성이 전혀 다르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자유롭게 행복하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하다[萬物齊同]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편협한 관점에서 사물의 아름다움과 추함, 귀함과 천함,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등을 분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인위적으로 늘려 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 내는 행위가 불행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자연적 본성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로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해지는 것도 어떤 관습이나 규범 체계, 제도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세워 놓고 억지로 그것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지인(至人), 진인(真人), 신인(神人)이라 일컬었다. 이들은 세상의 잡다한 일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 세계, 나와 남의 구분도 넘어선 경지에 있으므로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도(道)와 하나가 된 상태이므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신의 편견이나 의도된 마음이 없다.

-고등학교『윤리와 사상』

[라]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재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짙어가는 송이눈이 쌓여 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애가 톱밥 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되비추어 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땡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툭툭 튀어 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뭣이간다…….”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이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농부의 생각엔 삶이란 그저 누가 뭐래도 흠과 일뿐이다. 계절도 없이 쳇바퀴로 이어지는 노동. 농한기라는 겨울철마저도 용자금 상황과 농약값이며 비료값으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에 보낸 큰아들 녀의 학비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걱정만 하다가 보내고 마는 한숨 철이 되고 만 지도 오래였다. 삶이란 필시 등뼈가 휘도록 일하고 근심하다가 끝내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리라고 여겨졌으므로, 드디어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는 듯이 농부는 한숨을 길게 내쉰다.

(중략)

대학생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스물셋의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러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 뿔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곳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의 질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행상꾼 아낙네들은 산다는 일이 이를테면 허허한 길바닥만 같다. 아니면, 쪽두새벽부터 장사치들이 떼로 영겨 아우성치는 시장에서 허겁지겁 보따리를 꾸러 나와, 때로는 시골 장터로 혹은 인적 뜸한 산골 마을로 돌아다니며 역시 자기네 처지보다 나은 것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시골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참말 다 발라가며 펼쳐놓는 그 싸구려 옷가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들에겐 그따위 사치스러운 문제를 따지고 말고 할 능력도 건덕지도 없다. 지금 아낙네들의 머릿속엔 아이들에게 맡겨 둔 채로 떠난 집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것들이 밥이나 제때에 해 먹었을까. 연탄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며칠째 일거리가 없어 빈둥대고 있는 십 년

노가다 경력의 남편이 또 술에 취해서 집구석에 법석을 피워 놓진 않았을까…….

그러는 사이에도, 밖은 간간이 어둠 저편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딸그락거렸다. 전신주 끝을 물고 웅웅대는 바람 소리, 짝짝짝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난로에서 툭툭 튀어 오르는 툭밥. 그런 크고 작은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토해 내는 늙은이의 기침 소리와 함께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다.

대학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모여 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모두의 뺨이 불빛에 발갱게 상기되어 있다.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정말이지 산다는 것이란 때로는 저렇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바깥에서 툭밥 한 줌을 집어 든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 넣어 본다. 호르르르, 삐비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라져 들고 만다. 청년은 그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다시 한 줌 집어넣는다. 이번엔 아버지와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한 줌을 조금 천천히 흩뿌려 넣는다. 친구들과 노교수의 얼굴, 그리고 강의실의 빈 의자들과 잔디밭과 교정의 풍경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음울한 표정의 중년 사내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툭밥을 뿌려 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즐곤 지켜보고 있는 참이다. 대학생의 얼굴은 즐곤 상기되어 있다.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툭밥을 한 줌 집어낸다. 그러고는 대학생이 하듯 달아오른 난로에 툭밥을 뿌려 준다. 호르르르, 역시 삐비꽃 같은 불꽃이 환히 피어오른다. 사내는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하다. 허 씨 같기도 하고 전혀 낯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확실치 않은 얼굴이었다.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사내는 다시 한 줌의 툭밥을 집어 불빛 속에 던져 넣고 있다.

어느새 농부도,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와 춘심이도 이젠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고등학교『문학』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하여 [라]에 나타난 '대학생'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독해]

- (가) 고정관념 탈피 - 열린 관점 → 사물의 아름다운 진실 발견
- (나) 인위적 집착에서 탈피 → 본성 발휘 → 자유와 행복 - 만물일체의 경지
- (라) 대학생의 인식 - 변화 전: 올바른 이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재단함
대학생의 인식 - 변화 후: 대합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마다의 귀중한 삶의 가치를 발견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고정관념 탈피 - 열린 관점	아름다운 진실 발견
	(나)	인위적 집착에서 탈피	본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
대상	(라) 변화 전	자신의 신념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단	타자에 대한 배타적 의식 속에 갇혀 지냄
	변화 후	열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관찰	저마다의 귀중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유 얻음

[예시답안] 981자

고정된 관념을 탈피해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실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화가들은 참신한 관점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정한 형태, 색상만을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진리와 다른 견해가 나타나면 이를 적대시 한다. 이와 달리, 화가들은 개방적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이전에 조명하지 못했던 사물의 새로운 미를 부각시킨다. 이는 제시문 (나)의 장자가 주장하는 만물일체의 경지와도 상통한다. 획일적인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저마다의 다양성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시문 (라)의 대학생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은 세상이 운영되는 이치를 이해하고자 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은 비하하며 살아가곤 했다. 이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서 자기 신념이라는 편견에 갇혀서 세상의 아름다운 이치를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고 기존의 인식에 갇혀 있는 불행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합실에 앉아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평화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이내 자신이 있고 살았던 일상 속의 관계들을 떠올리며 그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내심 기뻐하게 된다. 이는 대학생이 자신을 움아매던 신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존에는 경계했던 대상들을 따뜻한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 따뜻함이 주는 귀중한 일상성을 깨달으면서 인식적 자유를 얻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신념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고전』에서 뽑은 지문으로 화가들의 체험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가]에 의하면 하늘을 반드시 푸르게 또 풀을 초록색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의 감동적인 모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 역시 장자의 사유를 통해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장자는 만물이 제각기 자신의 본성을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만 아름다움과 추함, 귀함과 천함,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등의 분별이라는 인간의 편협한 관점 때문에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인위적으로 늘려 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내는” 파괴 행위가 자행되어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편협한 관점과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두 지문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임철우의 작품 「사평역」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사회적 하층민들이다. 누군가가 푸념처럼 내뱉은 “산다는 게 대체 뭣이간다……”란 말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에 대해 곱씹어보게 되는데 스물세 살의 대학생에게 있어서 삶이란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모순된 현실의 변화를 위해 늘 깨어있어야 할 그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의 모순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자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그의 의식은 ‘현실/이상’, ‘잠들/깨어 있음’, ‘악/선’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딱 차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확신은 얼마 전부터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물론 아무리 변화를 꿈꾸어도 결코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하층민들이 단순히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각성 때문이기도 하다. 변혁을 위해 늘 긴장하고 타자를 부정하거나 자기를 경계하던 의식이 연민의 대상이었던 그들 속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비로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 2]는 이러한 대학생의 인식 변화를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제시문 [라]의 상황에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문제 2]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 대학생의 인식 변화에 대해 수험생 자신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질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로부터의 탈피라는 인식의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대학 문항해설]

[문제 2]는 [가와 [나] 지문에서 추출한 핵심 개념을 문학지문인 [라]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라]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인 임철우의 「사평역」을 발췌한 것이다. [가]에서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것이 창조의 원천임을 논하고 있고 [나]에서는 만물이 그 본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평등하고 소중하므로, 자신의 편협한 관점에서 가치를 분별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만물일체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라]에서는 사평역 대합실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연착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적 공간 속에서 한 23세의 대학생이 대합실 난로 주변에서 함께 기차를 기다리는 농부, 중년 사내, 행상꾼 아낙네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학생의 사회와 인간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가], [나] 지문의 핵심개념인 편견의 거부, 만인의 동등한 가치 인정과 연결 지을 것을 요구한다.

그 대학생은 본래 자신을 비롯한 사회성원들의 세상사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을 철저히 배격하는, 말하자면 사회 변혁 운동에 신념을 지닌 청년이었다. 그러나 한 달 남짓 유치장에 수용되고 또 퇴학까지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운동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는 강고한 기존 사회 질서라는 현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대학생에게 사평역에서의 열차 대기시간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주변의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다시 한 번 직접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무게와 소소한 희로애락에 침잠되어 있는 이들 인물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던 대학생은 그 얼굴에서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일종의 아늑함과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놀라게 된다. 인생이란 “때로는 저렇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사회변혁이라는 대의 추구를 대학생이 포기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의 소소한 즐거움 역시 가치 있을 수 있음을 대학생이 인정하게 된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이라는 격랑 속에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침묵한, 따라서 대학생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이들 다양한 인간 군상들에 대해 대학생이 새로운, 보다 포용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결국 인간과 사회에 대해 대학생이 지니고 있던 기존 편견이 동요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에서 말하듯 편견과 선입견의 거부가 새로운 인식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며 [나]에서 말하듯 모든 삶이 가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편협한 관점에서 이를 재단하는 것이 오류임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이어 이 대학생 청년은 자신이 톱밥을 던져 밝힌 대합실 난로의 불 빛 속에서 가족의 모습과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의 노교수와 교정 풍경을 떠올리게 된다. 일반 대중에 대한 대학생의 새로운 인식이 이제 자신이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과 친구로까지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념과 대의에 가려 잊혀졌던 소중한 존재들이 다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역시 [나]에서 말한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의 탈각과 포용적 자세의 수용이라는 개념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대학생과 함께 대합실 난로 옆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중년 사내의 심리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삶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변화는 주변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년 사내는 본래 자신의 인생을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지만 마치 꿈을 꾸듯 톱밥을 뿌려대던 대학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리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의 음울한 눈동자가 이제 기억 속 인물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빛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중년 사내 역시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삶을 보다 긍정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은 자신이 분석한 대학생의 인식 변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한 사람의 포용적 인식이 그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 인식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의견을 서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 채점기준]

[문제 2]에서는 [가]와 [나]에 나타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대학생’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 이해	① [가]와 [나]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을 이해하였는가? [가]와 [나]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은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라]의 ‘대학생 인식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	② [라]에 나타난 ‘대학생’의 인식 변화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였는가? [라]의 대학생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신념을 갖고 있었으나, 자신의 신념과 달리 변함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마주하며 혼란을 겪는다. 그러던 중 대합실에서 모인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다가 그들에게서 ‘아늑함과 평화’를 찾고 새삼 놀라며, 이내 어머니, 아버지, 동생, 친구, 노교수 등을 떠올린다. 그동안 자신의 신념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삶에 대해 ‘그런 삶은 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청년은 자신의 신념만이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즉,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숭고한 삶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③ [라]의 ‘대학생’ 인식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는가?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고 생각하던 대학생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은 [가]에서 말한 ‘기존의 관념과 편견’, [나]에서 말한 ‘편협한 관점에서의 차별’을 갖고 있었으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마주하고 이내 ‘고정 관념을 벗어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내용의 해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신의 주관적 잣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나름의 가치와 소중함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 ④ 제시문 [라]에서 분석해 낸 상황에 대한 학생 자신의 성찰이 제시되어 있는가? 일상에서 범하는 편견, 오해, 차별 등에 대한 성찰적 내용이 담겨 있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에서 말한 새로운 세계를 보려는 화가들의 태도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 [나]에서 장자가 말하는 ‘만물제동’의 의미를 이해하여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언급한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9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 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C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대학 예시답안] 996자

[가]와 [나]는 인습적인 관념이나 기존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일, 나아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등의 분별을 떠난 새롭고 자유로운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게 보게 되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만물이 모두 평등하고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큰 새는 큰 새대로 또 매미는 매미대로 각자의 삶이 있음을 인식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라]는 눈 내리는 어느 저녁 기차 대합실에서 대학생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되돌아봄으로써, 즉 [가]처럼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을 새롭게 봄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그의 이러한 자기인식은 [나]가 주장하는 모든 인간(만물)이 평등하고 소중함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과정과 연관된다. 대학생은 유치장 생활과 퇴학 경험을 통해, 학생운동으로 잘못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만이 옳은 삶이라 믿었던 자신의 신념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 그러던 중 대합실에 우연히 모인 중년 사내, 농부, 행상꾼 아낙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처음으로 그들로부터 어떤 “아늑함” 혹은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스스로에게 놀란다. 각각의 사연과 좌절을 지닌 이들에게서 그가 상정했던 관념적인 민중이 아니라 힘든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한 두름의 굴비”와 “한 광주리의 사과”를 가지고 “귀향”하는 구체적 개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또 그는 난로에 톱밥을 던져 넣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뿐 아니라 그들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자신과도 화해한다. 대학생을 보던 중년 사내가 그의 행위를 무심히 따라하고 이내 그의 “음울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것은 대학생의 변화된 인식이 소리 없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볼 때 나는 한 사람의 포용적 인식은 그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